

2021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  
성경의 핵심

메시지 16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  
지방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 안으로,  
그리스도의 온 몸의 섞임의 생활 안으로 인도함

성경: 롬 5:17, 16:1-16

- I.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 지방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 안으로 인도해야 한다 — 롬 16:1-16.
- A.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한 몸을 구성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조직은 없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은 있다 — 빌 1:5.
  - B. 인체 안에 혈액 순환이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순환, 곧 신약에서 교통이라고 부르는 순환이 있다 — 요일 1:3, 7.
    - 1. 교통은 공동 참여, 공통 참여이다. 그러므로 교통을 갖는 것은 어떤 것에 단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 빌 4:14, 2:1.
    - 2. 신성한 생명은 유기적이고 풍성하고 움직이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어떤 귀결, 즉 어떤 특정한 결과가 있다. 신성한 생명의 귀결 곧 결과가 생명의 교통이다 — 요일 1:1-3.
    - 3. 유일한 교통을 가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에 따라 살고 신성한 생명 안에서 행해야 한다 — 롬 8:2, 6, 10-11.
  - C. 교회들 사이의 교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다 — 고전 10:16.
    - 1. 주님의 회복은 그리스도께서 오직 한 몸을 갖고 계시며 이 몸은 많은 지방들에 있는 지방 교회들로 표현된다는 진리에 근거한다 — 엡 1:22-23, 4:4, 계 1:11.
    - 2. 한 영이 계시기 때문에 오직 한 몸이 있으며 몸 안에는 생명에 속한 오직 하나의 순환이 있다. 그 순환이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다 — 엡 4:4, 요일 1:3, 7.
    - 3.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은 ‘그’ 영의 순환, 곧 흐름이다. ‘그’ 영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순환할 때 신성과 인성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두 순환한다.
    - 4. 지방 교회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의 일부이며 몸의 교통은 우주적으로 하나이다. 교통 안에는 분리가 없다 — 계 1:11, 2:7상.
    - 5. 우리는 주님의 상에 올 때마다 몸의 교통에 참여한다 — 고전 10:16-17.
      - a. 주님의 상은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가 하나라는 증거이다.
      - b. 만일 우리가 스스로 몸의 교통에서 고립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주님의 만찬에서 상 위에 있는 떡은 그리스도의 온 몸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 6. 신성한 교통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는 실재이다 — 고전 1:9, 12:12-13, 27.
  - D. 몸 안에서 교회들의 교통에 의해 평안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짓밟으실 것이다 — 롬 16:20.
- II. 우리는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온 몸의 섞임의 생활 안으로 인도해야 한다 — 롬 16:1-16.

- A. 하나님은 몸을 함께 섞으셨다(고전 12:24), ‘섞이다’라는 말은 ‘조절되다’, ‘조화되다’, ‘고르게되다’, ‘연합되다’를 의미하며 차이를 잃어버리는 것을 함축한다.
1.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섞으려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영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배해야 한다.
  2. 섞임은 우리가 항상 다른 이들과 교통하기 위해 멈춰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와 동역하는 성도들과 교통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교통은 우리를 조절하고 조화시키며 고르게하고 연합하기 때문이다.
  3. 섞인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그 영에 의해 일들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분을 분배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으로 다른 이들의 다름을 받고 우리도 다른 이들을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 B.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유일한 하나를 지키려면 우리는 함께 섞여야 한다 — 고전 12:24.
1. 우리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개별적인 지체들의 섞임과, 특정 권역 안의 모든 교회들의 섞임과, 모든 동역자들의 섞임과, 모든 장로들의 섞임이 있어야 한다.
  2. 그러한 섞임은 사교 모임이 아니라 각 지체들과 권역의 교회들과 동역자들과 장로들이 누리고 체험하고 참여한 그리스도의 섞임이다 — 엡 3:8, 17, 골 3:4.
  3. 이 섞임은 하나님의 선한 기쁨(엡 3:8-10, 1:9-10)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목표인 새 예루살렘(계 21:2)을 완결하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엡 1:23)의 건축을 위한 것이다.
- C. “떡이 하나이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 고전 10:17.
1. 그리스도는 한 알의 밀로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고 부활 안에서 자라 많은 밀알들이 많은 믿는 이들을 산출하셨다. 그 밀알들은 부서지고 갈리고 섞여서 한 덩이, 곧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한다. 우리는 온전한 밀알인 채로 남아 있지 말고 부서지고 갈려서 고운 가루가 되어 다른 이들과 섞임으로써 한 덩이, 한 떡이 되어야 한다 — 고전 12:24.
  2. 우리는 모두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에 한 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은 우리를 그분의 한 몸으로 만든다 — 고전 1:9, 10:3-4, 17.
  3. 한 떡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한다 — 고전 10:16-17.
  4. 교회가 한 떡으로, 한 몸 안으로 섞이는 것에 대한 바울의 사상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소제물의 예표에서 취한 것이었다.
    - a. 그리스도의 생활과 우리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의 총체, 곧 단체적인 소제물인 교회 생활을 가져온다 — 레 2:1-2, 4, 고전 12:12.
    - b. 그리스도의 몸의 신성한 교통과 실재 안에서 우리에게서 소제물의 모든 요소들, 곧 고운 가루(그리스도의 인성)가 기름(그리스도의 영)과 소금(그리스도의 십자가)이 섞인 것의 실재가 있어야 하며 누룩과 꿀(죄나 어떤 부정적인 것)은 없어야 한다 — 레 2:1, 4-5, 11, 13.
  5. 섞임의 목적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 엡 1:22-23, 롬 12:5.
- D. 로마서 16 장은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온 몸이 섞이는 생활 안으로 인도하는 사도 바울의 뛰어난 본을 제시한다. 그러한 생활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다 — 롬 5:17.
1. 바울은 성도들을 한 사람씩 문안하면서 최소한 스물 일곱 명의 이름을 호명했다. 이것은 바울이 이들 각 사람에 관하여 상당한 인식과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롬 16:1-16.
  2. 바울의 추천과 문안은 성도들 사이의 상호 관심과 교회들 사이의 상호 교통을 보여준다.